

5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1.5.25일(화) 오후 3시~4시10분,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석 위원 : 박찬재 부위원장, 문해주, 정의식, 유환익, 정경모, 천경숙, 추문갑, 김세한 위원, 권혁남위원장(서면제출), 이현숙위원(불참) 등 9인

회사 참석 인원 : 시청자센터장, 보도국장, 심의실장

1. 다음 회의 일정

- 6월 일정 : 6월 22일(화) 오후 3시

■ 주요 내용

▲ 권혁남 위원장(서면제출)

- 미래의 주역 시청계층인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편성이 필요하다. 이미 TV뉴스는 중년과 노년층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다. 국내 TV채널별 평균 시청 연령층을 보면 KBS1은 50대 후반, KBS2, MBC, SBS, 중편 등은 40대 후반이 주시청자들이다. 젊은 세대(20, 30대)가 TV뉴스를 떠난 이유를 찾아, 뉴스의 편성과 내용을 그들에 맞추어 젊은 세대를 잡아야 한다. 젊은 세대가 TV뉴스를 떠난 이유는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모바일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잡아(예를 들어 토요일 오후 10시대) 젊은 세대가 원하는 뉴스 콘텐츠(취업, 교육, 연예계 소식, 스포츠 뉴스 등)를 집중 편성해야한다. 아울러 모바일 친화적으로 제작해야 한다. "연합뉴스TV는 젊은 세대 채널"이라는 채널이미지를 구축했으면 한다.

- 뉴스 인물의 사운드바이트(육성)가 중간에 잘리지 않도록 했으면 싶다. 뉴스에서 관련 인물의 육성을 내보내는 것은 뉴스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간혹 뉴스 인물의 육성이 완성된 문장으로 끝나지 않은 채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은 자칫 뉴스 인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뉴스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또한 뉴스가 불완전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미국과 한국 방송의 평균 사운드바이트 길이는 평균 9초 정도이다. 가능하면 뉴스 인물의 사운드바이트를 완성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인터뷰 할 때 9초 이내로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였으면 싶다.

▲ 김가희 심의실장

연합뉴스TV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숙제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각오를 다져서 방향성의 고민을 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뉴스인물의 중간에 잘리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편집상 취재상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재 부위원장

- 5. 1 08:29 청년도 외롭다...늘어나는 2030 고독사 관련 보도,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는 보도로 그동안 놓치고 있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청년은 '건강하다'라는 인식으로 고독사하면 노년층에 대한 문제로 여겨진다 생각되었으나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 1인가구의 증가 등의 이유로 청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혜택은 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 고독사의 문제는 일부에 국한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만큼 추후 이와 관련한 심층 보도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5. 04 17:28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사고도로? 보도화면 관련, 지난달 16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대형차량의 끼임사고나 접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다양한 서울시의 대책방안에 대한 보도 중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인터뷰와 사진을 보도하였는데 사진의 크기가 전체화면 구성과 맞지 않게 커서 불편함을 느꼈으며 특히, 동 보도화면이 동일 20:07에도 방송되었는데 이때 수어통역사가 사진 바로 앞에 있어 수어통역사의 병풍처럼 느껴져 시청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화면 구성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가희 심의실장

청년 고독사 관련 기사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불편하신 부분은 평상시 영상편집 메뉴얼에서 화면구성의 벗어난 사항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 문해주 위원

- 과학기술계는 4월 제시한 의견(과학기술 관련 뉴스 부족)에 대해서 신속히 준비하고 보도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높이 평가함. [출근길 인터뷰] 2050 탄소중립 실현 방법은?...'탄탄대로 캠페인' (5.6)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국민과 함께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탄탄대로 캠페인'을 진행 중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조향숙 부장과 인터뷰하였음, '탄'은 탄소중립, '탄'은 탄소제로, '대'는 대한민국, '로'는 과학기술로 줄임말로써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10대 핵심 과학기술과 연구를 응원하는 캠페인임, [출근길 인터뷰] 과학기술인의 나눔운동...'스마트 스마일 캠페인' (5.1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3월 '과학기술특별봉사단' 출범하고 다양한 나눔운동 진행하고 있음, 과학기술계의 나눔운동은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사이언스 오블리주 실천) 하는 운동이며 중고생에 대한 스마트기기 나눔 캠페인(1,000대), 카이스트 학생들의 학습멘토링 지원, 과학창의재단의 과학문화 바우처 제공, 의료인 힘내라 영상 캠페인, 의료인 꽃보내기 운동,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한 과학기술 팩트체크 등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 과학기술계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 연구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대중에게 알리고 기사화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는 자성과 평가가 있었음, 앞으로 과학기술계의 홍보 노력과 함께 다양한 방법(단순/심층보도, 인터뷰 등)으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길 희망함, 참고로 5월 가정의 달 관련해서 가정의 달,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한 부모 가정의 날(5.10), 입양의 날(5.11) 등을 주제로 한 많은 보도를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6월 보훈의 달에도 비슷한 맥락의 보도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28일 동안 이어진 청문정국에서 정치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 언론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음. 이 기간 중 매 뉴스 시간

마다 비중 있게 보도되었음, 동 기간 후보자의 검증이 의혹 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 전문성이나 자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언론(모든 언론)이 냉철한 시각으로 지적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일부 언론에서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음, 즉 정치권에서 나온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표현(예: 여자 조국, 보물섬)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이를 인용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연합뉴스tv는 일관되게 객관적 보도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여/야 발표내용 및 입장을 인용하여 함께 보도하고, 토론이나 전화 인터뷰 시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참석하고 비슷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여 그 판단은 시청자 몫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신속히 보도하고 '안보에서 경제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집중 보도하였음. 주요 합의내용 중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만에 해제된 내용도 포함되었고 대통령도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언급하였음. 동 지침 관련 보도에서는 1979년에 처음 시작하였고 그동안 한미 합의에 의해 네 차례에 걸쳐 수정되고 이번에 최종 동 지침이 해제되었다고 간단히 경과와 함께 그 의의를 설명한 것에 대해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함,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숙원이었음. 우리나라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주 기술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배경과 경위, 역사를 짚어보고 지침 종료의 의의 등을 심층 분석한 내용의 보도(전문가 초청 토의 등)를 해준다면 시청자들이 국가안보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임, 모더나 백신 국내 위탁생산에 대해서 그 의미와 영향에 대해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층 분석(5.24, 뉴스포커스)한 것은 전 국민과 세계적 관심사인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김가희 심의실장

평소에도 과학기술분야 보도를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깊이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평가를 먼저 생각하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도를 함에 있어 의미나 영향을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식 위원

- 5월 1일 08:00 코로나 자가 검사하는 방법을 직접 재연하여 보여주어 이해하기가 쉬워 좋았습니다. 5월 2일 04:00, 2030대 청소년들이 가상화폐 열풍에 기여한다고 코멘트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기여라는 말이 올바른 용어 선택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기여'보다는 "비중"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여: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 5/6 01:00 울산발 영국 변이에 대한 설명 중, 감염력이 훨씬 높고, 위험률도 3% 라고 하였으나, 위험률이 치사율인지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바이러스나,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비교치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똥똥하면 코로나 사망위험률 37% 더 높아진다. 2020년 3.5일: 사스: 10 %, 메르스: 34.4 %, 독감: 0.1~0.18 %, 코로나: 3.4 % 치사율은 사망자에 초점을 맞춘 숫자이다.

- 연합뉴스 TV 5/15일 05:00 백신 생산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YTN 에서는 동시간대 뉴스에서 백신 종류에 대해 그림(3월 제가 간단히 설명함)으로 설명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백신 교차 접종 가능성에 대한 부작용등 외국 통계 및 자료로 설명하여,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의미있는 것 같았다.

▲ 성기흥 보도국장

코로나 보도는 과학적인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게 보도해서 불안, 공포가 없도록 반영하여 보도하겠습니다.

▲ 유환익 위원

- 심층 기획보도인 뉴스프리즘과 연합뉴스TV스페셜은 현안 주요 이슈에 대해 30분정도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제고하는 매우 유익한 코너임, 예를들어 지난 5/2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의 공매도 관련 보도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고, 주식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뉴스전달이 기본 미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심층기획보도를 통해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업관련 이슈들을 좀더 많이 다루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금년 1월부터 5월23일까지 뉴스프리즘과 스페셜 이슈들을 분석해본 결과 기업관련 이슈는 4건 정도 다루어져서 사회문제 15건, 코로나 10건, 부동산 6건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

구분	사회문제	코로나	부동산	금융	기업	국제
주요내용	학폭,인구 등	백신 등	수수료 등	공매도 등	차등의결권 등	미중갈등
횟수	15건	10건	6건	5건	4건	1건

반도체경쟁, 전기차, 수소연료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 및 산업 관련 이슈들을 제기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함

▲ 김가희 심의실장

뉴스프리즘과 스페셜팀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분석결과도 알려주심에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이슈를 다루어 반영하겠습니다.

▲ 추문갑 위원

- 코로나 확산이후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지난 21일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북 관계에 성김 전 한국 대사가 대북 특별 대표로 깜짝 발표된것부터 55만 국군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 그리고 백신 생산 허브로 한국을 택한것 같아 아주 고무적입니다.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미래 경제를 위해 44조원을 미국에 투자하며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바이오 산업, SMR 원전 산업 등을 미국과 협력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42년만에 미사일 주권회복, 사거리제한 해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직접생산으로 수급돌파', '정부, 44조 투자 우리기업 미국에 인센티브 요청',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협력, 한미경제 동맹 원원'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간으로 주요이슈를 보도해 코로나로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철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에서 5월13

일 '원자재값 고공행진, 국내 제조업체 수익성 비상', 5월16일 '2분기 해상운임 사상 최고치, 수출기업 비상', 5월20일 '건설자재 수급불안' 등 최근 원자재 상승에 따른 문제와 관련한 여러 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도 회복과정에서 경제주체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인상되는데 대기업은 차일피일 미루며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고, 단가 조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납품한 건은 어쩔 수 없고, 신규오더만 반영해 준다고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지만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돼 납품할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합뉴스TV에서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도도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말씀하신 경기회복 과정에서 경제주체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의견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경모 위원

- 지난 1개월간의 "문화·연예" 분야의 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제93회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 및 영화 "미나리" 관련 기사가 28건을 차지하여 전체 103건 기사 중 27.2%를 차지했다. 지난 달 제93회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한국배우로는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함에 따라 관련 기사들과 수상소감, 영화제 뒷이야기, 관련 인터뷰 및 윤여정 배우의 영화인생 등에 대한 다양한 조명이 많은 기사로 다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정진석 추기경 선종 관련 기사가 14건, 방탄소년단(BTS) 관련 기사가 10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관련 기사(연등행렬 등 포함)가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달에는 '이건희 컬렉션' 관련 기사가 총 9건이 다루어져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반영하였다. 매년 5월은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성년의날,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 등 많은 기념일 및 공휴일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문화예술관련 행사가 많은 달인데다가 아카데미상 수상, 정진석 추기경 선종, 이건희 컬렉션 등 주목도 높은 이슈가 많은 이유 등으로 인해 이달에는 100여건이 넘는 문화예술·연예 관련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다채로운 취재나 기획,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보도는 많지 않고 매번 관행적으로 다루어지는 '핫이슈' 중심의 기사가 많아서 아쉬웠다. 특히 전월에 비하면 담당기자가 직접 취재하여 리포팅한 기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기사의 제공에는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리포트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전시를 다루며, 현장 예술가들에게도 초점을 맞춘 보도로 보여서 좋았다. 위와 같은 보도를 보다 많이 보게 되기를 바란다. 파리로 떠나볼까-영화관에서 즐기는 명화와 클래식 (5/2), 피카소 걸작 한 자리에-「한국에서의 학살」 첫선 (5/15), 영화로 뮤지컬로-다시 올려 퍼진 민주주의의 함성 (5/17),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한 거장들의 위로 (5/23) 등,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이건희 컬렉션' 관련 보도는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되는 작품의 내용이나 수준이 대단히 높고 미술품 조세물납제, 이건희컬렉션 관련 미술관 유치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충분히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크게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나 집중적인 취재보다는 단지 그 내용을 알리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문화 예술관련 보도는 단순한 내용 소개나 안내에 그치기보다는 현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함께 역사적인 기원이나 사회적인 맥락 등을 함께 다룬다면 기사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위의 '이건희 컬렉션' 관련 보도도 미술품 기부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나 관련정책,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미술관 유치 경쟁의 내용 및 문화예술의 지역 균형문제 등도 함께 다루면 좋았을 것이다. 다음 달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기획과 취재를 통해 수준 높고 유익한 기사를 많이 보게 되기를 바라며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도 더욱 많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 성기홍 보도국장

문화예술분야 보도분량, 형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건희 컬렉션 등 이슈 있는 것을 앞으로도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한 위원

- 단독보도 내용의 불명확성 및 재활용 의심 사례, [단독] '막차 대출' 물리자 편법 대출 기승...손놓은 당국 (5월 16일 뉴스), [단독] '가짜 사업자' 내면 최대 99%?...대출광고 실체는 (4월 23일 뉴스) 5월 16일 보도된 <[단독] '막차 대출' 물리자 편법 대출 기승...손놓은 당국> 기사는 7월 대출 규제 강화 전 대출 수요가 물리면서 편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는데 감독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보도에서 기자는 회사원처럼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용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례를 가장 대표적인 편법 대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상당사들이 고객을 다른 상담사나 금융사에 소개하는 이른바 '대출 돌리기'로 수당을 쌓는다는 사례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대출상당사 A씨, B씨의 관련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전에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역시 [단독보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뉴스를 비교해보면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예외를 악용한 편법적 대출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기사 모두에 대출상당사와의 비슷한 통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국의 부실한 대응 역시 두 기사에 모두 등장합니다. <평가> 먼저 5월 16일 보도된 <[단독] '막차 대출' 물리자 편법 대출 기승...손놓은 당국> 기사는 뉴스 전체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단독 보도인지가 불명확했습니다. 막차 대출 물리자 편법 대출이 기승을 부린다는 게 새로운 뉴스인지(비슷한 보도는 타사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을 걸로 생각되는데), 아니면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새로 취재된 뉴스라는 건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뉴스는 4월 23일 보도된 <[단독] '가짜 사업자' 내면 최대 99%?...대출광고 실체는>이라는 뉴스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편법 대출이 활개 친다는 기사의 주제, 대출상당사라는 취재원, 사례를 소개해준 뒤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컨셉 등,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90%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취재 기자는 동일인입니다. 이 중 '가짜 사업자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적극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대출상당사 B씨의 멘트는 기사의 야마에 맞춰서 답변을 유도한 듯한 인상마저 들었습니다. 언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독보도의 중요성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연합뉴스TV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진정한 단독보도가 늘어나야 회사의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같은 내용을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사용하면서 단독보도 타이틀을 다는 것은 취재기자 본인이나,

기사를 걸러내지 못한 데스크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취재 과정에서도 단순히 익명의 대출상담사와 통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품을 팔아서 실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찾아 인터뷰를 했다면, 보다 현장감 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인터뷰를 진행하는 앵커의 질문이 너무 길다는 느낌, [1번지 전화인터뷰] (5월 21일 방송) 5월 21일 보도된 <[1번지 전화인터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 묻는 정국 현안> 코너는 전화로 신현영 대변인과 인터뷰를 하며 3개의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는 형식이었는데, 한정된 시간과 질문의 개수 제한 탓이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앵커의 질문이 다소 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대상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거나, 답변하는 장면을 시청자들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화기를 통해 답변하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질문하는 앵커의 질문이 길어지면, 그에 따라 답변자의 답변도 길어져 시청자들이 질문과 답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질문 개수를 4개나 5개로 1~2개 늘리더라도 앵커의 질문을 지금보다 조금 짧고 명료하게 한다면 인터뷰 대상의 답변이 시청자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단독을 남용한다는 의견, 제 생각도 과했다고 봅니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데스크와 해당 기자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념할수 있도록 환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앵커의 질문보다 인터뷰이어의 답변을 길게 듣고 싶어하시는 희망사항인 시청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경숙 위원

- 5월 3자 오후 9시 뉴스, 어린이날 안전사고 평소보다 1.4배 많아... 어린이날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평소보다 1.4배 많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1만6천여건, 일 평균 107건을 기록, 어린이날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하루 평균 148건으로 1.4배에 달한다는 사고 유형별,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낙상이 9천477건 교통사고가 8천290건 월별로는 날이 따뜻해지는 3월부터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6월에 가장 많았다는 내용, 5월 5자 오전 9시 뉴스, 스쿨존 주정차 이제 그만...어린이 지켜주세요,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스쿨존을 둘러보았다는 내용으로 하곳길 초등학교 앞의 불법주정차를 보여주며 1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8만원 ⇒ 12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5월 11자 오후 12시 [센터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外 끊이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불법 주정차'입니다. 오늘부터(1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경우 이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 ⇒ 12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9만 원 ⇒ 13만원 인상 연합뉴스TV 홍정원기자의 멘트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스쿨존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어린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뉴스의 그래픽뉴스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어린이 관련 교통관련보도 격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해당 홍정원기자 칭찬하심에 감

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청자에게 마음에 와닿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 박찬재 부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5월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